

한진, 561억 투입해 휠소터 도입... 택배 분류작업 빨라진다

전국 55곳 서브터미널에 설치
나머지 터미널도 순차적 도입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등 효과
시장 점유율 확대 목표 한발짝

한진이 택배 분류작업 자동화에 본격 나섰다. 총 561억원을 투입해 전국 55곳의 택배 서브(Sub) 터미널에 배송 분류 자동화 장치인 '휠 소터(Wheel Sorter)' 설치에 박차를 가하면서다.

이같은 투자 등을 통해 한진은 2023년까지 목표했던 택배 시장 점유율 20%에 더욱 바짝 다가선다는 계획이다.

6일 한진에 따르면 전국 184개 택배 터미널 중 현재 5개 터미널에 휠소터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터미널 부지면적이 좁아 휠소터 설치가 어려운 사업장을 제외하고 우선 55개 터미널을 대상으로 오는 10월부터 휠소터를 차례로 도입할 예정이다.



한진이 전국 55곳 택배 서브 터미널에 설치할 계획인 휠 소터.

그 외 터미널은 부지 확장 이전 또는 시설보완을 통해 내년 중 추가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투자 재원은 유휴 부지 및 대체부지 확보 가능한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휠소터는 서브터미널에 설치해 택배 상자를 자동으로 배송 지역별로 분류해

주는 장비로 분류작업시간 단축 등 운영 효율을 통해 고객서비스를 제고하고, 택배종사자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크다.

한진은 택배 터미널 처리능력 확충과 자동화 및 정보통신(IT) 시스템 투자 확대 등 사업 전 부문의 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올해에만 동서울 허브터미널 증설, 원주 허브 및 세종 허브 터미널을 신설해 가동하고 있다. 한진은 현재까지 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허브 터미널은 11개에 달한다.

특히 지난 7월에는 2023년 가동을 목표로 최첨단 설비를 갖춘 스마트 물류센터로 구축중인 대전 스마트 메가 허브 터미널 기공식도 진행한 바 있다.

총 2850억원이 들어가는 대전스마트 메가 허브 터미널은 대전종합물류단지 내 5만9541㎡ 부지에 축구장 20개 규모에 해당하는 연면적 14만9110㎡의 초대형 거점 물류센터로 탄생한다.

하루 120만 택배박스를 처리할 수 있는 대전 스마트 메가 허브 터미널이 내년 본격 가동되면 한진택배는 하루 총 275만 박스까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아울러 지난 8월초 택배 IT 인프라를 AWS(Amazon Web Services) 클라

우드로 이전을 끝낸 택배 물량 급증 등 IT 내·외부 환경변화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차별화된 경쟁력도 확보했다.

한진 관계자는 "택배사업의 캐파 확충과 업무효율 및 근로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서브터미널 휠소터 도입을 비롯해 택배터미널 신축 및 확장, 설비 자동화에 약 5000억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서비스 차별화와 영업력을 강화해 시장점유율 20% 이상을 달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진은 택배기사의 안전과 업무 편의성 개선을 위해 배송용 '전동대차' 개발과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터미널 출장 건강검진을 진행했다. 또 올해 중으로 헬스케어 솔루션 서비스 구축 등 택배기사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동행 활동을 지속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청년창업 지원 팔 걷은 중기부, 전담과 신설

청년창업 전담 '청년정책과' 설치
20~30대 청년 위주로 직원 배치
인력·창업현장 등 다방면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청년창업을 전담하는 '청년정책과'를 새로 꾸렸다.

청년 창업 열기를 이어가 제2벤처붐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서다.

중기부는 7일부터 국장급인 창업진흥정책관 내에 청년정책과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청년정책과는 과장을 포함한 직원들을 20~30대 청년 위주로 배치해 눈길을 끈다.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창업정책이 기획·실행될 수 있도록 운영하기 위해서다.

신설한 청년정책과는 지난 5월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에서 발표했던 핵심 과제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또 청년의 특성을 고려한 특화 프로그램들을 통해 청년창업 붐이 확산될 수 있도록 청년창업 정책을 총괄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청년 창업붐 확산의 지역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창업중심대학'은 연내 대학 5곳 내외를 새로 지정한다.

올해 선정할 창업중심대학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향후 5년간 중기부의 창업 지원사업을 전담해 수행하며 지역의 대표적인 청년창업 지원기관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 청년창업기업들의 개발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한 맞춤형 인력지원 프로그램

인력 '스타트업·벤처 청년인재 이어드림 프로젝트', 'SOS 개발자 프로젝트'도 하반기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 특화 창업지원프로그램인 청년창업사관학교와 창업기업 지원서비스 바우처 등은 청년창업 현장에 맞도록 지원한다.

오는 11월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창업경진대회인 '도전K-스타트업'을 열어 청년 창업 붐이 전국으로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권철승 중기부 장관은 "우리 경제는 청년들이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중기부는 앞으로도 창업을 통해 성장해가는 청년들의 도전을 응원하고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KCC, 유망 스타트업과 기술 공동개발

'스타트업 오픈 스테이지 밋업'
수소·코팅 등 참여 기업 모집

KCC가 개방형 혁신을 함께 이끌어 나갈 유망 스타트업 발굴에 나섰다.

KCC는 오는 10월 20일 '스타트업 오픈 스테이지 밋업' 행사를 앞두고 참여 희망 스타트업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KCC는 주력 사업 영역인 건축자재, 도료, 소재 기술 분야를 비롯해 AI·빅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전환, 물류 시스템 효율화, 친환경 에너지, AR·VR 기술 등 다양한 주제로 스타트업과 협력할 예정이다.

상세 협력 분야로는 ▲수소 BIZ ▲

코팅 및 복합 소재 기술 등 신소재 ▲지속가능한 경영 사업 모델(친환경 소재 및 에너지 절감 기술 등) ▲업무 효율화·자동화 시스템(생산 및 물류, 공정 등) ▲가상공간 기술 등 미래 기술을 선도하는 다양한 기술·제품·서비스 등을 두루 포함한다.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하는 이번 행사 참여 모집 기간은 이달 23일 까지다. 참여를 원하는 스타트업은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협업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상세 모집 분야 및 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승호 기자

중기유통센터-장애인고용공단 중소 '동반성장몰' 오픈

중소기업유통센터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손잡고 동반성장몰을 6일 열었다.

'동반성장몰'은 대기업과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제품 전용 폐쇄형 온라인쇼핑 플랫폼이다.

두 기관은 이번 동반성장몰 도입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제품 대량구매, 임직원 중기제품 자율구매 등 중소기업 온라인 판로지원 방안을 다각적으로 협의해가기로 뜻을 모았다.

/김승호 기자

중진공, 중소기업 임직원 위한 교육서비스 확대

'마이크로러닝 사이트' 신설
기술·경영·인문 등 콘텐츠 1000개
10분 내외 영상 비대면으로 제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벤처기업에 다니는 임직원들을 위해 비대면 연수를 위한 마이크로러닝 사이트를 새로 만들었다.

6일 중진공에 따르면 이번에 신설한 마이크로러닝 사이트에선 중소벤처기업의 신산업·디지털 인력 양성을 위한 ▲D.N.A(Data, Network, A.I.) ▲ES

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BIG3(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기술분야와 경영·인문 분야 콘텐츠 등 1000여 편을 이용할 수 있다.

마이크로러닝이란 10분 내외의 콘텐츠로 핵심을 전달하는 교육 방식이다. 짧은 시간으로 교육 몰입도가 높고 모바일 수강 등을 지원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강화한 교육 형태다.

중진공은 코로나 등으로 교육여건이 어려워진 상황을 고려해 모든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한다. /김승호 기자

275만원제품 25% 저렴하게 판매

SK매직이 지난 4월 출시한 '소파형 고급안마의자(MMC-145·사진)'가 월 1000대 판매 돌파를 기념해 9월 한 달간 특가전을 진행한다.

6일 SK매직에 따르면 9월 한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추석을 맞아 대표 효도 선물로 인기있는 안마의자를 구매하려는 고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행사로 ▲소파형 고급 안마의자(MMC-145) ▲프리미엄 4D 마사지 고급형 안마의자(MMC-150) ▲3D 돌기볼 입체지압 안마의자(MMC-155) 3종을 일시불 구매 및 렌탈 고객도

두에게 할인한 가격으로 판매한다.

인기 모델인 소파형 안마의자는 판매가 275만원 제품을 25% 싼 206만2500원에 판매한다. 음성 인식 기능과 함께 총 12가지 자동 마사지를 제공하는 프리미엄 4D 마사지 고급형 안마의자는 판매가 466만원 제품을 390만원에 판매한다. 총 10개의 자동 안마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3D돌기볼 입체지압 안마의자도 할인가 320만원에 선보인다. /김승호 기자



BSI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모더나 255만회분 추가 도착... 25만 회분 공수 실패 /사진 뉴시스
▲文 대통령, 비공개 환담서 200만명 이상 '신용 사면' 준비 당부

▲정부, 이달 중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양육 능력 있는 독신, 입양 허용"... 법무부, 민법개정 추진



▲당국 "코로나·독감 다른 감염병... 각 예방 접종 필요"
▲"연쇄살인" 강윤성, 검찰 송치... 살인 예비 혐의도 추가 /사진 뉴시스